

아름다운 주택을 꿈꾸며 Dreaming the Beautiful Home

이관직 /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J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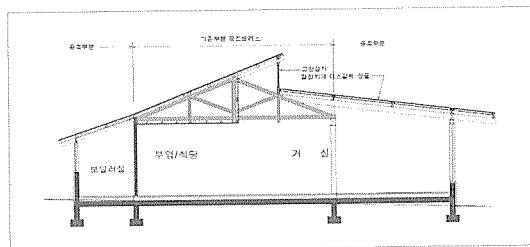
주택설계의 기회

몇 년전 가까운 사람의 소개로 은평구에 상가주택을 설계하게 되었다. 건축주는 노인에 대한 봉사와 한국전통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젊은 분이였다. 건축가가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이해도 깊은 편이었다. 현실적인 이유로 여러가지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건축주의 노력과 배려 덕분에 '진관외동 주택/담장낮은 집'은 완공되었다. 대로변에 2층 상가주택이고 규모도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지만 다각형의 대지를 소화해 내면서 나름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지금은 1층은 건축주가 직접 국산차 등을 파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건축을 시작하고 최초의 자신의 주택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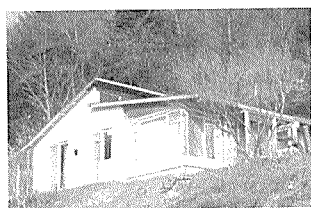
또 한번 은평구 도로변에 삼각형의 자그마한 땅에 주택을 설계하게 되었다. 담장낮은 집 건축주의 소개로 한층이 20평이 채 안되는 지하1층, 지상 2층의 주택이었다. 이른바 진관외동 II건물이다. 조그마한 슬레이트집이 있던 자리에 한가족 3세대를 구성하면서 면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계단실을 중심으로 반층씩 나누어 쓰는 스킵후로어 형식이 되었다. 대지를 침범한 이웃집과의 민원 문제며, 지적도와 맞지 않는 대지형상을 해결하고, 좁은 땅에 지하에 별도의 출입구와 법정주차장을 확보하느라 감리단계에서 고생을 했

다. 그래서 두번째의 주택이 만들어졌다. 주택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기에 앞서 건물이 가능하도록 해결하는 단계에 머무른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

다가구, 다세대가 유행인 때에 연희동에 다가구주택을 설계했다. 여러 것을 거쳐 검토를 수없이 한 경우의 대지였지만 치밀한 면적과 기능을 해결하는 것은 자신(?)이 있는 터였다. 주차장이 크리티컬한 건물이었다. 4대의 경우와 3대의 경우를 선택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4대의 경우 1층을 완전 피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하층은 완전히 땅에 묻혀서 근린생활로 계획해야하는 경우였다. 여러가지 검토 후에 건물 전면에 3대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엇갈린 계단을 이용하여 주차장 상부는 2개층이 되고, 건물 후면부는 3개층이 되는 스킵후로어로 해결하였다. 외벽은 드라이비트로 마감되었다. 상부층에 건축주의 주택이 계획되었다. 스킵후로어의 마지막 층이었기 때문에 1.5층 높이의 거실이 가능했다. 주차장이 건물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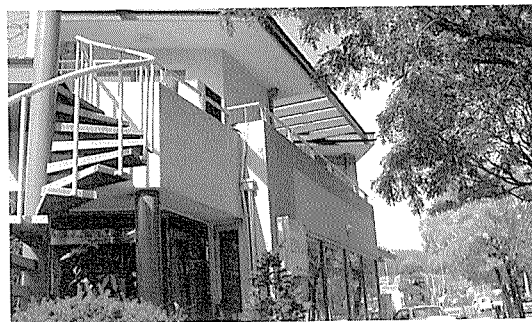
마석농가주택 단면도



마석농가주택 전경



마석농가 주택 내부 - 기존목재트러스와 고창이 보인다.



담장 낮은 집

을 제한했으므로 주택의 면적이 그리 넓지 못해서 거실에 부엌 식당이 함께 있는 LDK로 계획되었고 상부에 천장을 설치했다.

그 후에 역삼동에 상가주택설계를 했다. 강남이지만 큰길에서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 1층 상가, 2층 다 가구이고 3,4층이 주택인 복합 상가주택이었다. 골목에서 다양한 풍경으로서의 주택이라는 이미지를 노력했다. 하우스플렉스(Houseplex)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이번에는 상부에 주택을 계단실을 중심으로 스킵후어로 해결하고 거실의 공간감과 각 실에서 외부로의 다양한 조망과 골목에서의 배경으로서의 다양한 주택표정이 되도록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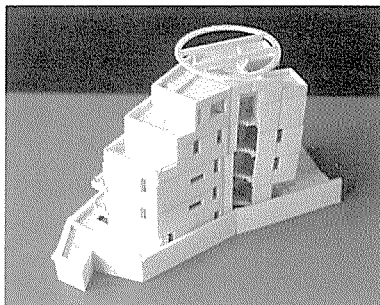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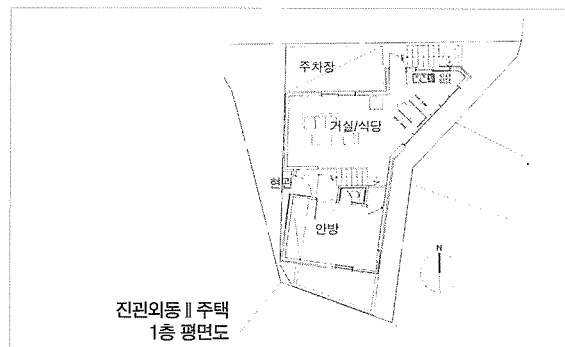
전원주택의 기회

그렇게 복합건물로서 주택을 몇번하게 되면서 빈 땅에 처음부터 하는 주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약 빈 땅에 처음부터 주택을 온전히 그린다면 정말 좋은 건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빈 땅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여러 다른 건물의 경험을 통하여 경험한 바에 따르면 결국 여러 제약 속에 뜻한대로 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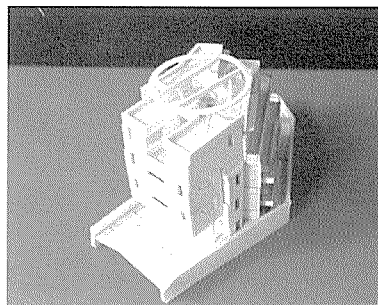
그러던 중 어른들이 미국에서 10여년만에 귀국하시어 예전에 사시던 블록집을 전체적으로 보수할 기회가 생겼다. 83년(필자는 당시 대학교 4학년이었다)에 아버님이 직접 설계(?)하여 지은 것이었다. 돼지 사육을 위한 창고에 딸린 관리사로 지은 것이어서 단순하고 영성했다. 그나마 남쪽으로 샨시를 이어내서 거실로 쓰고 있었고, 후면의 부엌을 가지면 방을 통해서 가야할 정도였다. 개보수를 할 요량으로 지붕목조 트러스를 남기고 블록의 일부를 철거하여 평면을 재조정하고 지붕경사를 일부 연장하여 고창을 만들었다. 남향을 전망을 위주로 서향으로 바꾸고 나중에 나무를 사다가 직접 차양공사를 하였다. 전원주택으로의 고급스런 모양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내가 손수 그리고

공사 보조 잡부도 하고 애를 많이 쓴 건물이 되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랑도 하곤 한다. 아파트의 부엌은 여러 제약으로해서 대부분 인공조명에 의존하는 어둡침침한 곳에 비해 마석의 집은 고창을 통하여 해가 들 정도로 밝은 거실-식당에 붙은 주방이 있고 어느 곳이나 환한 밝은 집이다. 초라하지만 그 옛날의 지붕속 목조 트러스를 거실 쪽은 노출시키고 일부를 미송으로 보강하여 구조적인 맛을 살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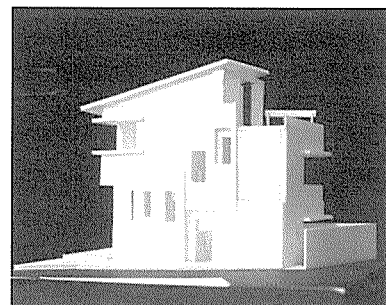
마석의 집도 준공한지 일년이 다되어 간다. 최근에 진관외동주택-담장낮은 집의 건축주가 그의 누님과 함께 지축동 북한산 부근에 그린벨트의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겠노라고 연락이 왔다. 그 건축주의 세번째 건물인 셈이다. 여러 사람에게 너무도 열심히 소개를 해주는 그분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자신의 집의 건축 설계를 맡기는 것이다. 현장을 답사하고 주택을 시작한다. 그야말로 빈땅에 처음부터 순수 주택으로 그것도 전원주택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감사와 감동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대지 조건이 만만치는 않았다. 개발제한 전에 대지로 지정된 땅이어서 주택권이 있지만 한 필지여서 부동산사무소에서 이야기한대로 분할이 만만치 않았다. 구청에서는 당장은 필지 분할이 곤란하니 한 채를 짓고, 준공 후 필지 분할해서 나머지를 지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었다. 그것도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주택권이 가능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건교부 질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



연희동 다가구 주택 모델



연희동 다가구 주택 모델



진관 외동 II 주택 모형

고 답을 기다렸다.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애매하지만 일단 필지분할이 가능할 것 같은 답변이 나왔다. 군 사보호구역이어서 지금 군협의(건축가능질의서)를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두가족의 건축주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하여 조형 단계까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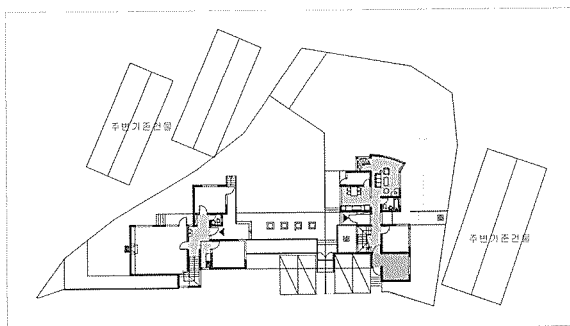
살사람을 위한 주택

그동안 설계를 해온 것이 증축, 개보수 등의 프로젝트가 하도 많아서 빈 땅에 조건없이 학교에서 하던 설계처럼 마음대로 해 보았으면 하고 생각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설계를 진행해보면 그 조건이라는 것이 신축이거나 증축, 개보수거나 사실 전혀 구분 없이 매 단계의 어려운 제약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건축은 조건과 개념의 싸움이 된다. 조건은 무엇인지 확실한데 개념은 매번 자신을 더 괴롭힌다. 건축은 새로워야한다는데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왜 새로워야 하는가. 나의 건축에서 내가 드러내려는 것, 나의 것은 무엇인가. 사십의 중반, 우리나라에선 벌써 중진이라는 이름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서 건축을 시작하려 하는데 중진이라니. 어쨌거나 프로젝트는 진행해야 하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강박관념정도가 되었다. 위기가 기회라지만 기회는 다시 위기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본다. 플라톤의 파르마론이든 파라독스이든 어쨌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나에게 아니라 건축주에게 중요한 건축인 것이다. 보통 사람은 평생에 자신의 건물을 한번 지어보면 어쩌면 성공한 것인지 모른다. 그토록 중요한 프로젝트를 직업적인 반복의 기회로 생각해 버렸던 자신을 반성하며 다시 처음부터 생각한다.

외적조건과 내적개념의 갈등



지축동 주택 A, B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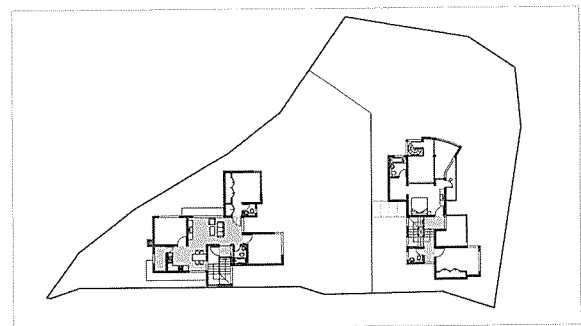
주택에서 개념이란 무엇인가. 건축일반론의 관점에서 주택은 조금 다르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축주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주택은 그 둘이 동일인이고, 장기적인 소유 혹은 거주에 상태에 있게 되며, 더구나 세대를 반복하여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또한 남에게 팔게 되거나 임대를 해버리면 설계 때 진행한 모든 협의 내용은 연속관계에서 무의미해지기도 한다. 결국 주택도 건축주와 사용자가 다른 일반 건물에 있어서의 조건을 잠재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도 건축가의 개념의 표현일 수 있는 개별표현의 대상이 된다. 개별표현이라는 말은 공공성의 작품인 건축이 작가의 개별표현으로서의 작품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포함한다. 주택은 일반 건축과 마찬가지로 건설 주문을 하는 일차적인 건축주와는 별개로, 건축물로서 사용자의 순수한 공간-기능 관계를 이해하는 건축가의 해석에 의한 기능, 공간, 조형, 물성이 조화된 작품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와 협의를 통하여 건축주의 요구 조건에 의한 집을 설계하고, 건축주의 돈으로 건설을 하는 것이므로 일차적인 관계에 의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 건축주와 건축가의 작업은 '조건과 개념'의 갈등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지만 지축동 A, B 주택이라고 부른다. 지축동 A의 건축주는 목사와 미술교사이다. 노모가 계시고 아이가 있다. 미술교사인 부인을 위한 작업장과 목사인 남편을 위한 이야기방이 요구되었다. 지축동 B의 건축주는 진관외동주택-담장낮은집의 건축주이다. 약사인 부인과 지금은 따로 살지만 같이 모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부모가 있고, 아직 유아인 어린 딸이 있다. 딸에 대한 방과 공간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이 각별하다.

두건물은 지금은 하나의 필지이지만 정확히 면적을 둘로 갈라서 분할하고 독립적이지만 공동의 생활 영역과 공간, 조형이 요구되어졌다. 그러면서도 별도의 생활과 소유가 가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매매 처분



지축동 주택 A, B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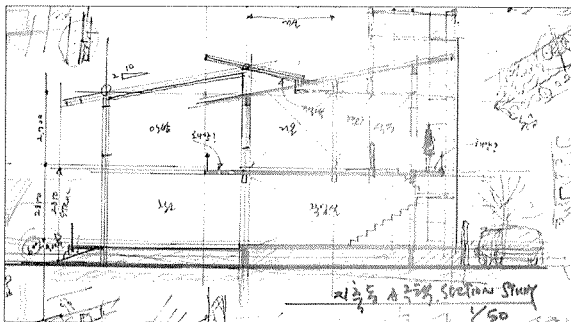
도 가능해야 한다.

우선 요구된 조건과 대지의 해석에 충실하려고 했다. 북한산을 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2층에서는 담장처럼 둘러쳐 있는 나무위로 북한산, 도봉산의 봉우리와 능선이 기가 막히게 펼쳐진다. 초기의 착상은 건물 전체 계획 방향을 좌우한다. 중요한 기점인 착상은 공식이 없다. 대부분은 대지와 요구조건을 분석해 놓고 며칠이고 스케치에 의존한다. 그래서 대지의 형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초기 단계에서 대지의 형태와 접근(access)이 중요한 단서가 되고 대지의 이용효율을 고려하게 된다. 특히 A주택은 건축주의 노모가 텃밭을 희망하였고, 분할선을 정하면서 주택의 배치를 염두해 두었다.

초기 안을 만들고 첫 계획안 미팅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생각과 너무도 달랐다. 서면으로 만들어 주기까지한 건축주의 요구와 대지조건을 충실히 풀어서, 나름대로 건축적인 제안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회의 때는 그런대로 긍정적인 것 같은 분위기가 며칠후에 공동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전혀 반대의 의견으로 올라왔다. 조금은 난감했지만 주택은 건축주의 것이고, 설계는 그 주제에 대한 최선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정되고 지적된 내용에 따라 다시 작업을 했다. 그후에 계획안은 두 세번의 변화를 겪었다.

주택 A는 계단을 중심으로 집중된 공간 구성이다. 건폐율이 20%로 제한된 조건이 건물을 압축되도록 만든 이유이기도 하지만, 건축주의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해법과 관련된다. 1층은 작업실과 이야기실이 계획되었고, 주택은 2층에서 현관을 별도로 두었다.

주택B는 현관에서 건너마당으로의 조망과 채광이 1층에서의 관심이었다. 1.5층에 위치한 아이방은 비교적 넓은 면적, 다락방, 고창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것이다. 2층의 주인방은 침실과 거실 공간으로 구분되고, 거실 부분은 아래층 거실과 시각적 공간적으로 연결되고, 동



지속동 주택 A 단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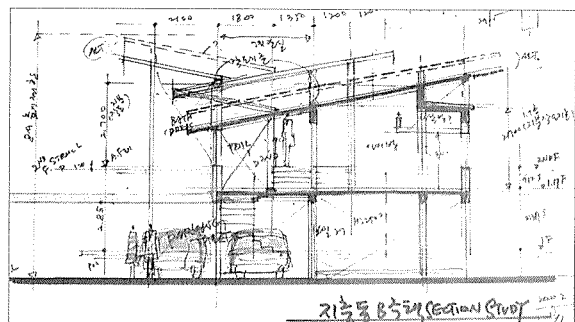
을 계단을 통해 동선의 연결도 고려했다. A주택과는 달리 공간을 중첩된 선적(linear)인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분산 공간을 생각했다.

사는 이에게 유쾌하고, 보는 이에게 아름다운 건물, 그러면서도 안전한 건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풀어가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지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조형 또한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이다. 지붕은 건축주의 비교적 강력한 요구로 경사지붕으로 검토되었고, 경제성과 시공성을 염두에 두었다. 지난번 건축을 통해서 건축주는 평지붕에서의 방수하자에 대해 예민한 염려를 하고 있었다. 경쾌감과 비레가 지붕에서의 관심사이다. 시각적인 디자인과 개념의 문제는 언제 하나로 만날 것인지.

아직 최종의 물건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림단계에서의 수정과 고민이 건설 단계에서 하자과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는 그림에서의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설계단계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디자인은 보다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수 있음은 확실하다.

새로운 개념을 세우고 건축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다. 그래서 힘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아름다움을 위한 접근방법은 새로운 모험 밖에 없음을 안다. 어떤 건물도 조건의 결정체이다. 조건과 개념의 갈등에서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도 그런 갈등일 수 밖에 없음을 안다.

나의 건축, 우리의 건축, 한국적인 주택은 아마 나에게 몸에 밴 어떤 것(생각, 손, 마음, 근육, 틈, 조직, 프로세스, 컴퓨터...)에 충실하는 것으로 이 시대에, 새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드러나리라고 믿는다.



지속동 주택 B 단면 스케치